

2024년 11월 25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주가 회복력을 채워가는 구간

한국 증시는 1) 월 중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추가 유입 여부, 2) 11월 FOMC 의사록, 3) 미국의 10월 PCE 물가, 4) MSCI 리밸런싱 발 외국인 수급 변동성, 5) 한은 금통위 이후 달러/원 환율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50~2,580pt).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투자심리 위축 심화에 따른 거래 부진이 지수 반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지난주 코스피 +3.5%, 코스닥 -1.2%). 주 초반인 25일 종가에 MSCI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으며, 통상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다만, 리밸런싱 발 수급 변동성은 그 지속성이 길지 않으며, 양시장 모두 그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인 과매도, 밸류에이션 상 저가 매수 유인이 높아진 구간인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 시, 금주 국내 증시는 주중 외국인 단기 수급 변동성,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2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연기금 저가매수세 유입,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관련주 상승 등으로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 급락으로 인해 코스닥은 하락 마감 (KOSPI +3.49%, KOSDAQ -1.23%)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삼성전자 급등, 전기차 보조금 폐지 뉴스플로우로 인해 급락했던 자동차, 2차전지주로의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 이와 더불어 금융 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벤처업 펀드 집행을 예고하고, 연내 추가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 발표한 점이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로 작용.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국내 증시는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 장세 연출. 증시 거래 대금 위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세의 연속성을 띠는 업종이 적었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정책적 수혜 기대감과 향후 호실적까지 예상되는 조선주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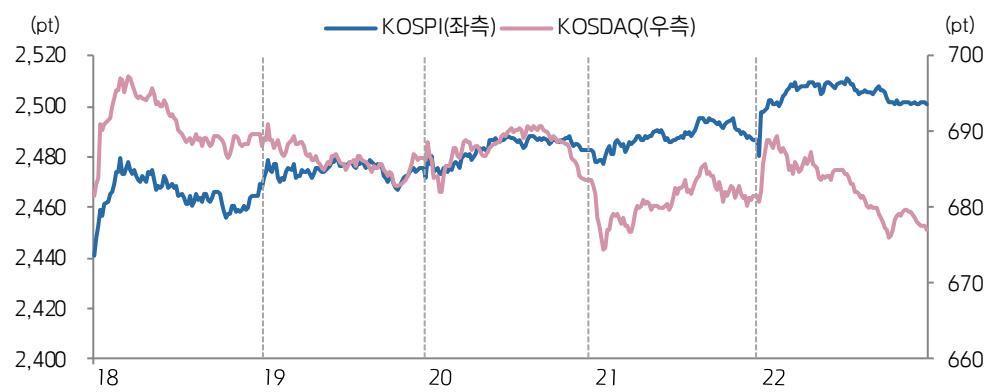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50.8억 달러(컨센서스 5.5% 상회), EPS 0.81 달러(컨센서스 8.9% 상회), GPM 74.5%(컨센서스 부합)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까지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가이던스상 수익성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며 이전과 같은 주가 랠리가 나타나지는 않음.

다만, 가이던스 실망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콜에서 AI 산업 확장이 유효하다는 인식 속 국내 HBM 등 AI 관련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여기에 주요 대기업 그룹사의 벤처업 정책 공시와 주주환원 확대 소식에 힘입어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주 후반 코스피 상승에 기여.

업종별로 보험(+8.96%), 전기기기(+6.57%), 금융업(+5.43%), 통신업(+5.38%), 화학(+4.59%)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종이목재(-0.51%), 섬유의복(0%), 의약품(+0.57%), 철강금속(+0.79%), 기계(+1.2%)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7,081억원)은 서비스업(+1,786억원), 운수장비(+672억원), 기계(+632억원), 전기기기(+482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2,341억원)은 전기전자(+3,233억원), 금융업(+2,382억원), 서비스업(+1,223억원), 운수장비(+1,131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1월 25일	월	미국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10 월	-	-0.28
			댈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11 월	-	-3.0
11월 26일	화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11 월	-	101.7
			주택가격지수 (YoY)	9 월	-	4.2%
11월 27일	수	미국	S&P/CS 20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YoY)	9 월	-	5.2%
			CB 소비자신뢰지수	11 월	112	108.7
			신규주택판매	10 월	723K	738K
			<b>근원 내구재수주 (MoM)</b>	10 월	0.2%	0.5%
			GDP (QoQ)	3 분기	2.8%	3.0%(2.8%)
			PCE (YoY)	10 월	2.3%	2.1%
			PCE (MoM)	10 월	0.2%	0.2%
			PCE (YoY)	10 월	2.8%	2.7%
			PCE (MoM)	10 월	0.3%	0.3%
			잠정주택판매 (MoM)	10 월	-	7.4%
			실적 델 테크놀로지			
11월 28일	목	한국	공개 FOMC 회의록	11 월	-	-
			소비자 신뢰지수	11 월	-	-12.5
			한국 금리 결정	11 월	3.25%	3.25%
			휴장 미국(추수감사절)			
			한국 산업생산 (MoM)	10 월	-	-0.2%
			소매판매 (MoM)	10 월	-	-0.4%
			일본 도쿄 CPI (YoY)	11 월	2.2%	1.8%
			유로존 CPI (YoY)	11 월	-	2.0%
			미국 시카고 PMI	11 월	-	41.6
			중국 복합 PMI(PMI) (30 일)	11 월	-	50.8
			제조업 PMI (30 일)	11 월	-	50.1
			비제조업 PMI (30 일)	11 월	-	50.2
	금		휴장 미국(추수감사절 13:00 조기종료)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11월 중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추가 유입 여부, 2) 11월 FOMC 의사록, 3) 미국의 10월 PCE 물가, 4) MSCI 리밸런싱 외국인 수급 변동성, 5) 한은 금통위 이후 달러/원 환율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50~2,580pt).

22일(금)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3.2%) 등 AI주 차익실현 속 지표 호조로 인한 금리 상승에도, 연말 소비시즌 및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 지속 등으로 시클리컬 및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4%, 나스닥 +0.2%). ISM 제조업 PMI에 비해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S&P의 11월 미국 제조업 PMI(48.8, 컨센 48.8), 서비스업 PMI(57.0, 컨센 55.2)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의 낙관론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 이는 11월 초 대선과 FOMC가 종료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및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이 전반적인 기업들의 심리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임.

그러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71.8, 컨센 73.7)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발표됐다는 점은 소비 경기 불확실성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는 상태. 이런 측면에서 주 후반 예정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미국 증시는 목요일 조기 폐장, 금요일 폐장)의 결과가 중요해진 상황. 통상 연말 랠리는 미국의 소비 경기 향방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쇼핑시즌 결과는 연말까지 미국 증시의 추가 랠리 여부를 가늠하는 첫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결과 이외에도, 주중 금리와 달러의 향방이 중요할 것.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전망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중립 이상의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함. 하지만 나흘로 약세가 심화됐던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여타 증시의 움직임이 정체된 것은 고금리 및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데서 기인. (상원 인준은 통과해야 하지만) 주말 중 트럼프 2기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스콧 베센트가 지명됐다는 점도 금리와 달러의 방향성을 전망하는데 고민이 될 것. 그는 지난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50bp 인하를 놓고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향후 연준과 트럼프 2기 간의 대립 우려가 쉽게 소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더해 12월 FOMC 동결 전망도 나오고 있음을 고려 시, 11월 FOMC 의사록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 이번 의사록에서는 1)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에 대한 시각 변화, 2) 고용시장의 냉각 전망 후퇴 여부, 3)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해당 의사록 공개 이후 Fed watch 상 47%대로 형성된 12월 금리 동결 확률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또 10월 CPI를 통해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을 확인했으나, 대선과 FOMC 결과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으므로, 의사록과 같은 날 발표되는 10월 PCE 물가(컨센 2.3%YoY, 9월 2.1%)에 대한 민감도도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투자심리 위축 심화에 따른 거래 부진이 지수 반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지난주 코스피 +3.5%, 코스닥 -1.2%). 주 초반인 25일 종가에 MSCI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으며, 통상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다만, 리밸런싱 발 수급 변동성은 그 지속성이 길지 않으며, 양시장 모두 그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인 과매도, 밸류에이션 상 저가 매수 유인이 높아진 구간인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 시, 금주 국내 증시는 주중 외국인 단기 수급 변동성,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2024년 11월 25일

KIWOOM WEEKLY

###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501.24	0.8	3.5	-2.7	-5.8
대형주	2,503.50	0.9	4.0	-2.4	-5.6
중형주	2,714.67	0.3	0.9	-4.9	-2.6
소형주	2,111.88	0.4	1.7	-3.5	-7.6
코스피 200	332.36	0.9	3.7	-2.8	-7.2
코스닥	677.01	-0.5	-1.2	-8.3	-21.9
대형주	1,618.76	-1.7	-3.1	-9.2	-20.3
중형주	586.52	0.9	0.6	-7.5	-17.9
소형주	2,219.44	0.2	0.8	-6.6	-20.9
코스닥 150	1,142.51	-2.1	-4.0	-8.6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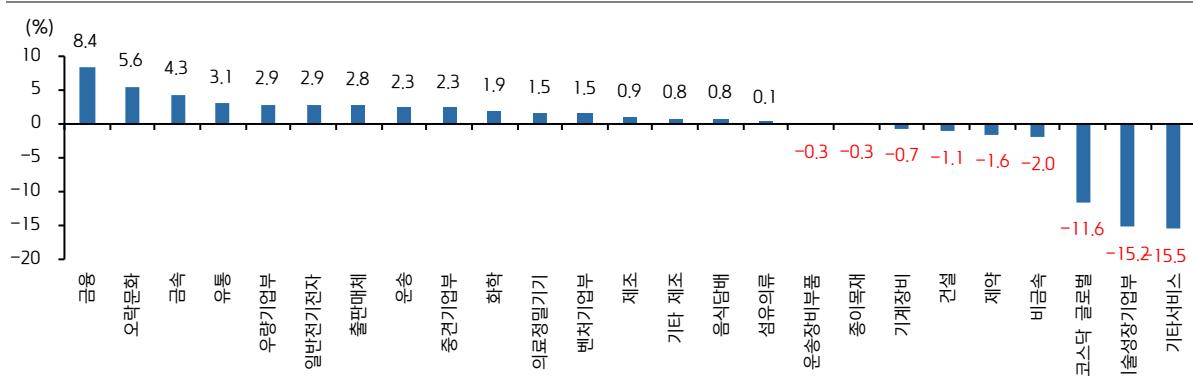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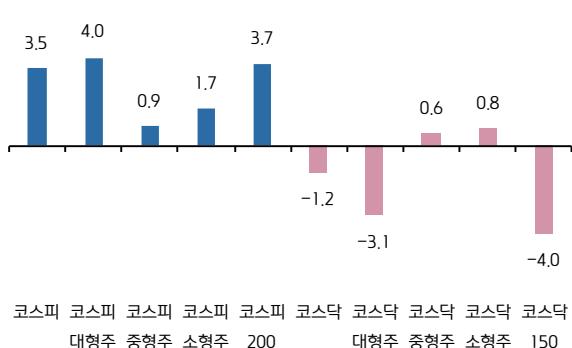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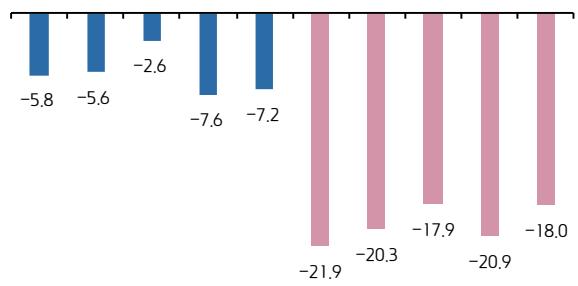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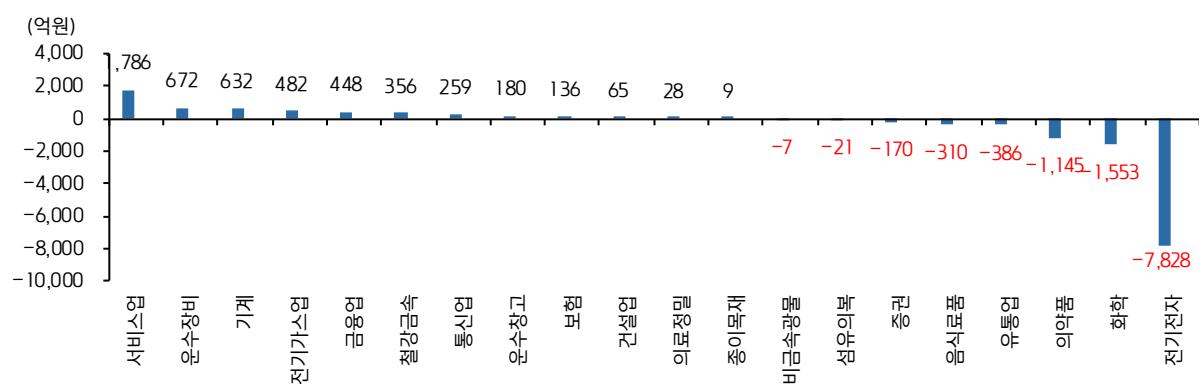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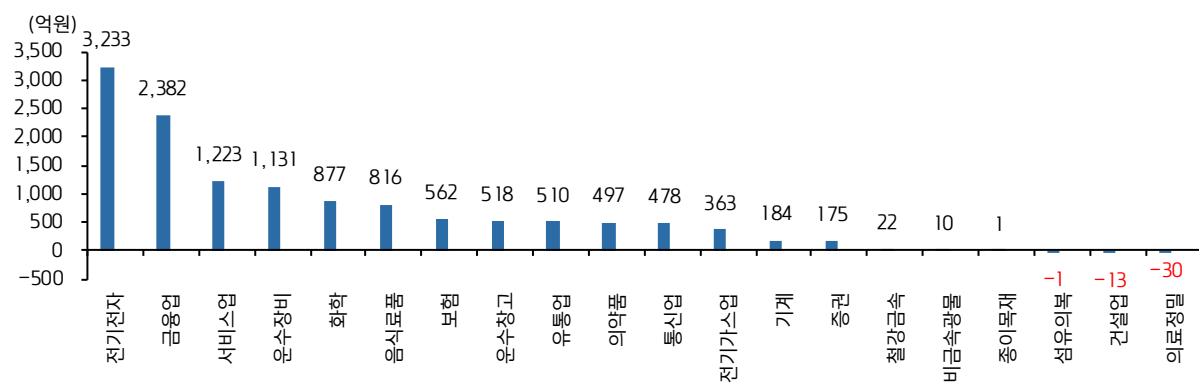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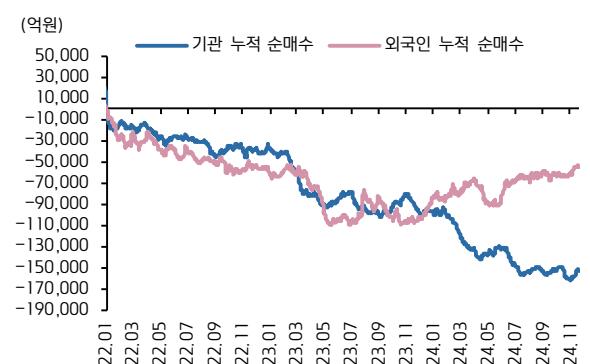
KIWOOM WEEKLY

###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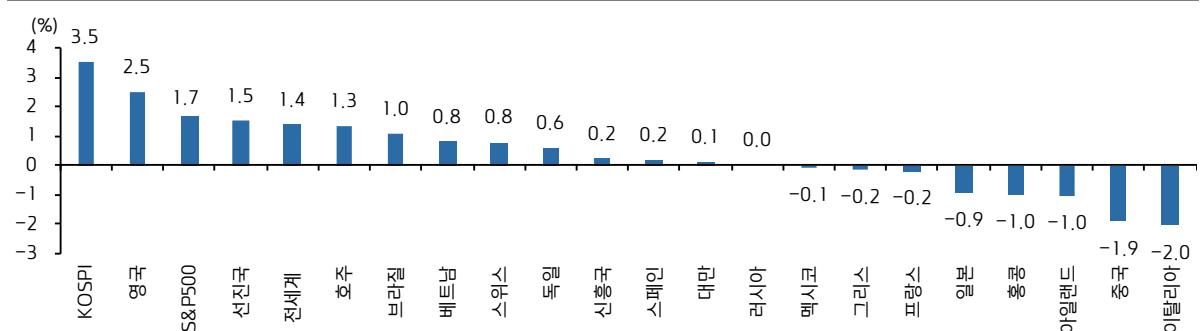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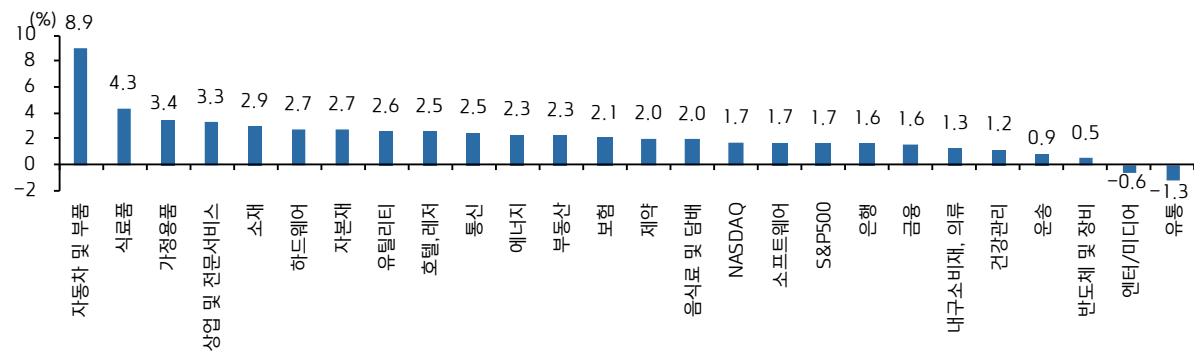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